

# numbers 제 95호



## 주요 내용

2021.05.14

- 이번 주 주제 :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 신앙 교육 실태]  
- 크리스천 부모,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우고 싶다' 82%
- 최근 언론보도 통계  
[국내 입양 실태]  
- 2007년부터 국내 입양아, 국외 입양보다 많아져!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  
-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姓) 선택 '찬성한다' 62%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기독교 통계

# 크리스천 부모,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우고 싶다' 82%

그동안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하며 가정은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성경은 신앙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적 사명이 담긴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9절, 에베소서 6장 1~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현장에서의 신앙 교육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가정 신앙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가정 신앙 생활과 자녀 신앙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신앙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비대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IFCJ 가정의힘'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최근 '가정 신앙과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넘버즈] 제 95호에서 그 결과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리스천 부모의 절반 정도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82%가 자녀 신앙 교육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만큼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크다는 뜻인데,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세대의 신앙 계승 및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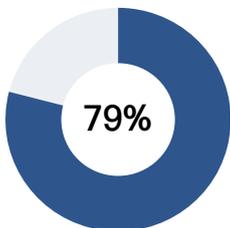


## 아버지가 교회 출석하면, 전 가족 교회 출석률 높아진다!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교회 출석 부모 5명 중 4명(79%)은 가족의 교회 출석에 대해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족 중 일부만 출석'하는 경우는 21%로 조사됐다.
-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출석한다'는 비율은 아버지(남성) 응답자에서 더 높았는데(어머니 70%, 아버지 85%), 이는 아버지(남편)가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에서 가족 모두 출석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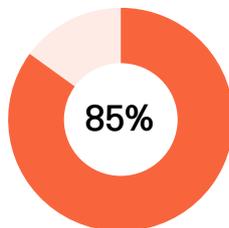
[그림] 가족 전체 교회 출석율(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부모 대상)

가족 전체 교회 출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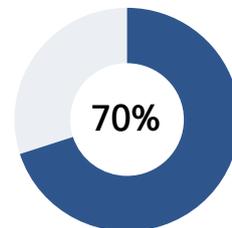


[그림] 가족 전체 출석률(부모의 교회 출석 여부별)

아버지 교회 출석 시  
가족 전체 출석률



어머니 교회 출석 시  
가족 전체 출석률



\*자료 출처 : 한국FJ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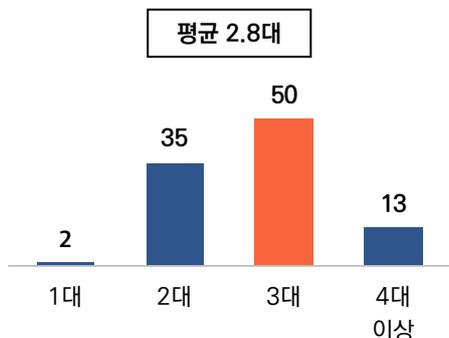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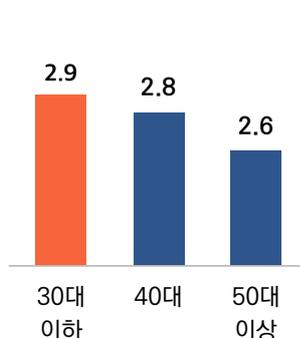
## 현재의 신앙생활, 평균 2.8대째 이어오고 있다!

- 신앙생활은 3대째 이어오고 있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고, 평균 2.8대째로 나타났다. 신앙생활 이어온 대 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신앙생활 이어온 대수(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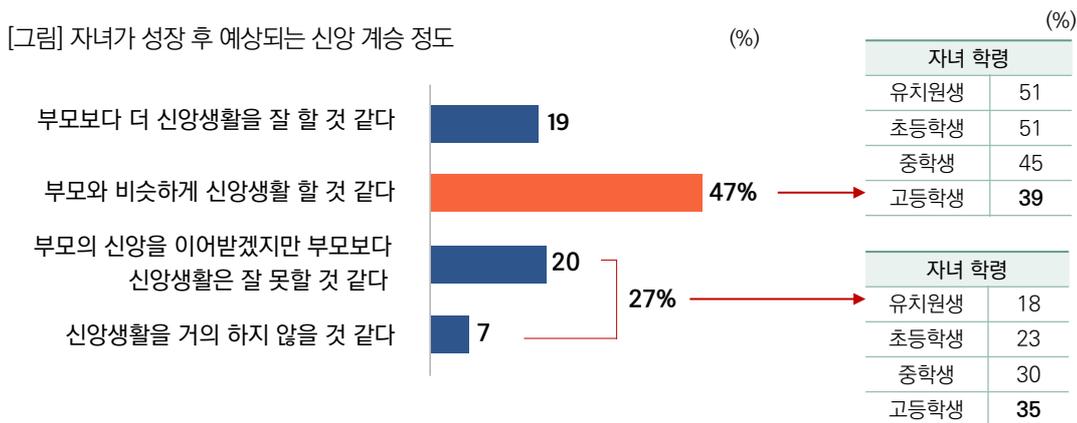
[그림] 신앙생활 이어온 대수(연령별) (%)



\*자료 출처 : 한국FJ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 자녀의 신앙 계승,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 27%

- 자녀가 성장 후 예상되는 신앙 계승 정도를 물었더니, 47%가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고 응답했으나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신앙을 이어받겠지만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또는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부모 신앙이 다음세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특히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35%로 유치원생 자녀 18%보다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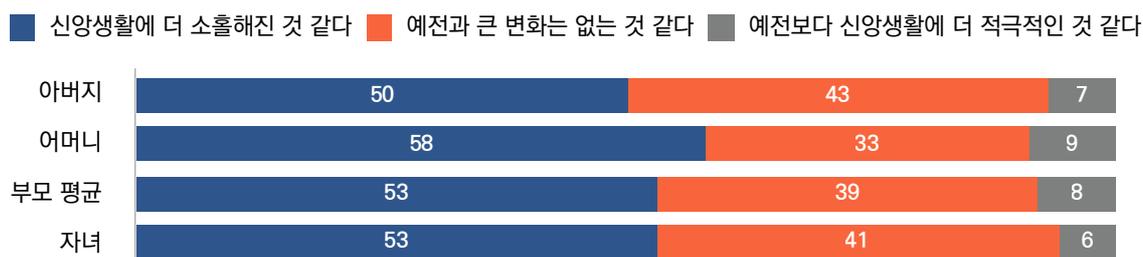
### 3



##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 53%

-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 변화에 대해 물은 결과,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진 것 같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는 인식이 더 높은 점이 주목된다.
- 특징적인 것은, 부모의 신앙생활 변화와 자녀의 신앙생활 변화 정도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인데, 자녀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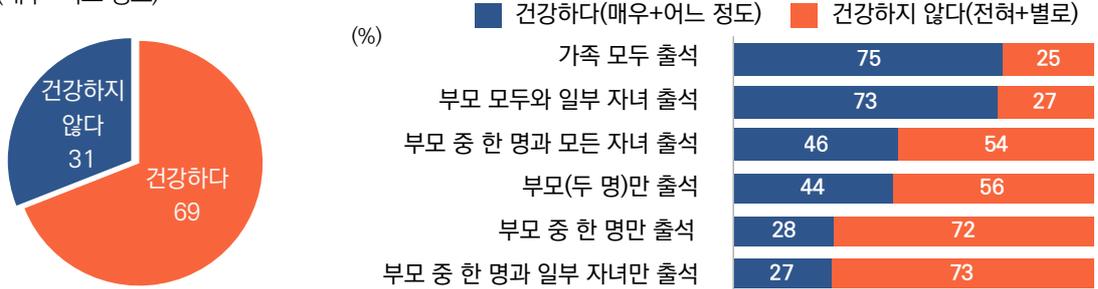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31%

- 자신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9%가 ‘건강하다’(매우+어느 정도)고 응답했다. 다수가 자신의 가정을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보면 3분의 1은 ‘건강하지 않다’(전혀+별로)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 신앙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는 비율은 가족 구성원의 교회출석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가는 가정에서 ‘건강하다’(매우+어느 정도) 비율이 가장 높으며, 부모 모두와 자녀 중 일부가 나가는 가정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 전반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그림]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다’ 인식 (매우+어느 정도) [그림] 가족의 교회 출석 구분별 가정의 신앙 건강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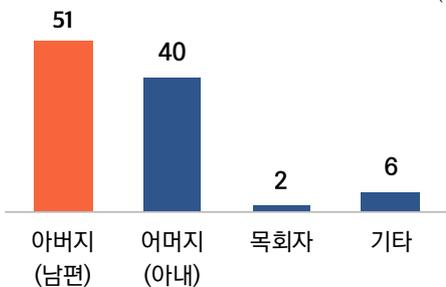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 ‘아버지’

- 가정 전체가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아버지(남편)’가 51%로 가장 높게 응답됐다. ‘어머니(아내)’는 40%로 나타났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교회 출석과 가족 모두의 교회 출석이 상관성이 높고, 신앙적인 역할자로도 아버지가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어, 가정 신앙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부모별 응답 결과가 상이한데, 부모 각자 자신을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인식의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앙적인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자 (%)



[그림] 신앙적인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자 (부모별, 상위 3위)

순위\응답자	아버지	어머니
1위	아버지 58%	어머니 50%
2위	어머니 34%	아버지 41%
3위	목회자 2%	목회자 2%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4



## 자녀에게 하는 주요 교육 중, 신앙 교육이 가장 뒤처져!

- 지성, 인성, 진로, 신앙 분야별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를 물었다. 그 결과, '가르친다(가끔+자주)'는 비율이 '인성 교육' 94% > '지성 교육' 79% > '진로 교육' 69% > '신앙 교육' 5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신앙 교육은 자녀 교육 분야 중 가장 실천도가 떨어지는 분야이며, 인성 교육 정도의 2/3에도 못 미쳤다.

[그림]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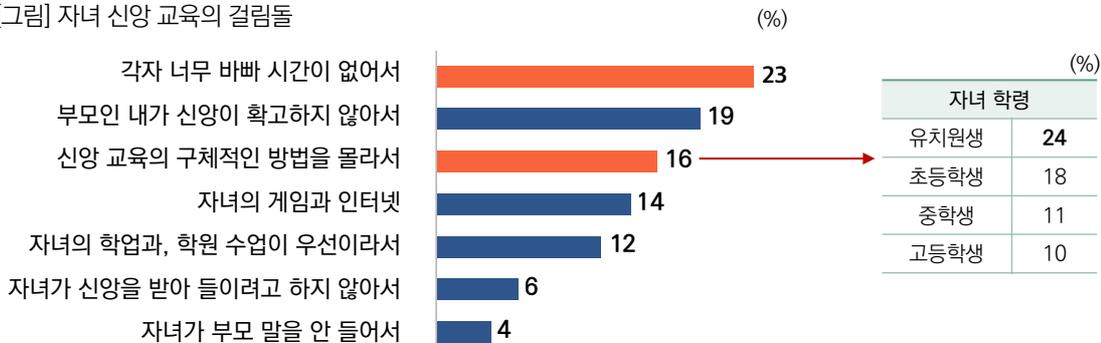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IF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4점 척도 질문으로 긍정(가끔+자주 가르친다)와 부정(전혀+별로 가르치지 않는다) 응답률만 제시함

### ● 자녀 신앙 교육의 걸림돌 : '각자 바쁘다' > '부모의 얕은 신앙'

-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가 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모의 얕은 신앙'(19%), '신앙 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16%) 등으로 나타났다.
-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는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 '중학생' 부모에서는 '자녀의 게임과 인터넷(22%)'이 상대적으로 많이 꼽혔다. '고등학생' 부모에서는 '자녀의 학업과 학원 수업이 우선(21%)'과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11%)'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됐다.
- 자녀 연령별 특성이 나타나는 문항으로, 자녀 연령에 맞는 부모 신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특히, 미취학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구체적인 신앙 교육 방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자녀 신앙 교육의 걸림돌



\*자료 출처: 한국IF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 부모의 절반 가량, 자녀 신앙 교육 방법 ‘잘 모른다’

-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의 부모(48%)가 잘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험은 전체 부모의 27%에 그쳤다.
- 또한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부모 중, 훈련 받은 내용을 지속 실천하는 비율은 18%로,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의 5%만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고 지속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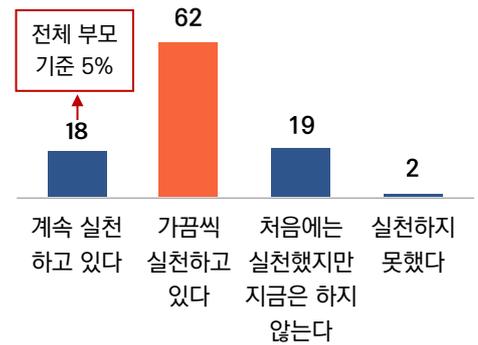
[그림]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인지 여부 (%)



[그림] 자녀 신앙 교육 훈련 받은 경험 (%)



[그림] 훈련 내용 실천 여부 (%)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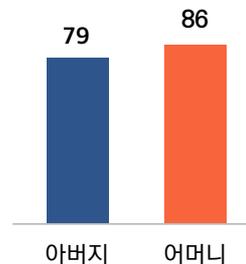
## ●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울 필요성 느낀다' 82%

- 부모들에게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필요성을 느낀다 (매우+약간)'는 응답이 82%로, 대부분의 부모가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은 니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별로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으나, 아버지도 79%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부모 모두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강한 니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선 교회에서 부모의 니즈에 부합하는 자녀신앙 훈련 확대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이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울 필요성 (%)



[그림]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울 필요성 느낀다' (부모별) (%)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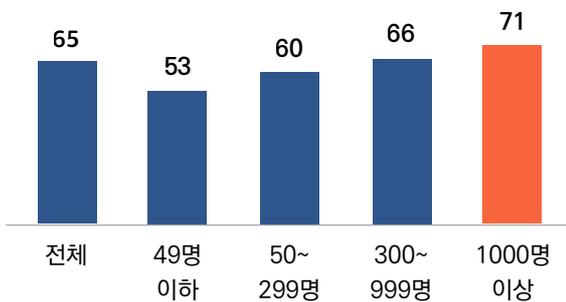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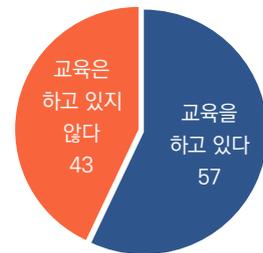
## 출석 교회의 가족 신앙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교회 규모 클수록 높아!

- 출석하는 교회에서 1년 간 가족 신앙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적 있는지 물었더니 2/3(65%)가 '있다'고 응답했다. '제공한 적 있다'는 응답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아진다.
-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활용 방법 교육을 출석 교회에서 진행한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의 37% 정도만 출석 교회에서 가족 신앙활동을 위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은 셈이 된다.

[그림] 지난 1년간 출석 교회의 가족 신앙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한 적 있다' (교회 규모별, 출석 교인 기준) (%)



[그림] 출석 교회의 자료 활용 방법 교육 여부 (가족 신앙 활동 위한 자료 제공 받은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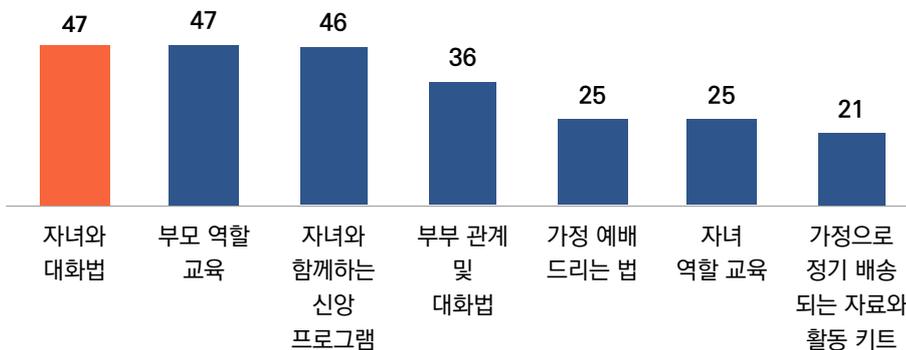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IF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 가족 신앙을 위해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자료는 '자녀 교육에 관한 것'

-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세우기 위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 것으로는, '자녀와의 대화법', '부모 역할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등 주로 자녀에 관한 것이 상위권에 응답되었다. 크리스천 부모들의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그림] 가정을 신앙적으로 세우기 위해 교회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것 (중복응답) (%)



\*자료 출처: 한국IF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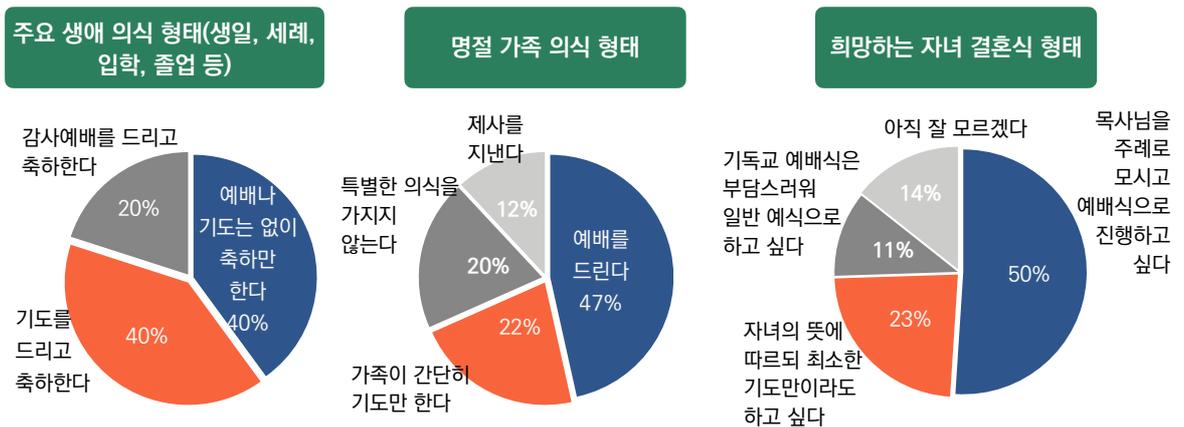
6



## 크리스천 부모가 원하는 자녀 결혼식,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예배식으로 진행하고 싶다' 50%

- 주요 가정 행사에 기독교 의식을 치르는지 조사한 결과, 생일, 세례, 입학, 졸업 등의 주요 생애의식에는 '예배나 기도 없이 축하만 한다'와 '기도를 드리고 축하한다'가 40%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고, '감사예배를 드리고 축하한다'는 20%로 나타났다.
- 명절 가족 의식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47%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가족이 간단히 기도만 한다' 22%, '특별한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20%, '제사를 지낸다' 12% 등으로 응답됐다. '예배+간단한 기도'를 합하면 69%의 가정이 명절에 일정 부분 기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희망하는 자녀의 결혼식 형태에 대해서는 절반의 응답자(50%)가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예배식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23%는 '자녀의 뜻에 따르되 기도는 하고싶다'고 했으며, 13%는 '기독교 예배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다.

[그림] 주요 가정 행사 시 기독교 의식 여부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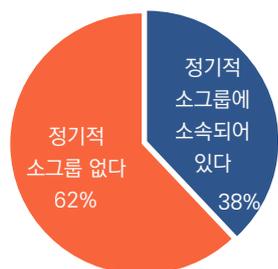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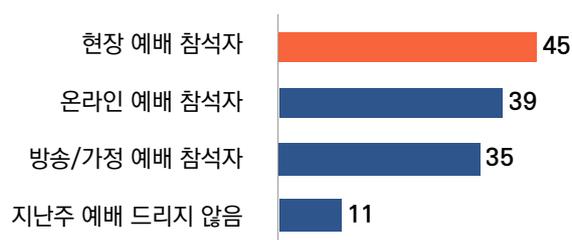
## 신앙적 배움 및 실천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그룹 활동한다’ 38%

- 신앙적 배움과 실천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그룹(모임)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38%가 ‘있다’고 응답했다.
- 소그룹 활동자는 현장 예배 참여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정기적인 신앙적 소그룹 활동 여부 (%)



[그림] 정기적 소그룹 활동 여부 (지난주 예배 유형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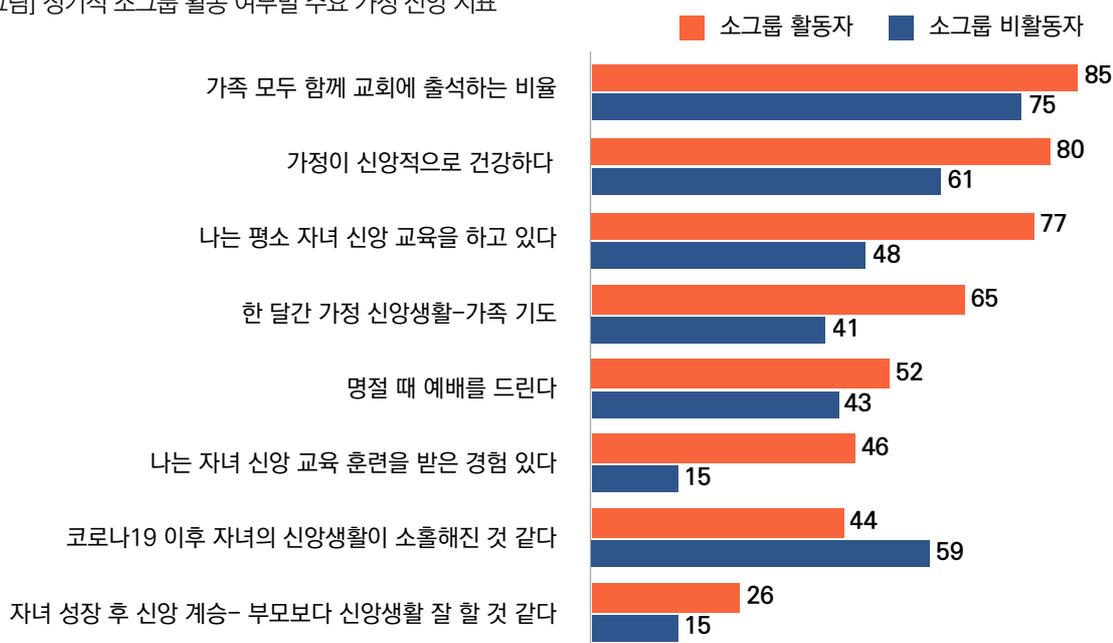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 정기적 소그룹 활동자, 비활동자보다 모든 가정 신앙 지표가 긍정적!

- 본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신앙적인 소그룹 활동을 하는 부모 그룹에서 가정 신앙에 대한 지표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그룹 활동이 자신의 신앙생활 뿐 아니라 가정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세우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정기적 소그룹 활동 여부별 주요 가정 신앙 지표



\*자료 출처: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시사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짧은 시기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년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을 전도했으며,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성장을 경험했다 1). 이 시기에 성인이 되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가족 구성이 대략 3대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3대 이상의 신앙 가족이 50%였고 평균 2.8대였다. 이제 한국 개신교는 가족 종교화되었고, 조부모, 부모, 자녀가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었다.

신앙 가족 대수가 이어지면서 자녀의 신앙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앙 체험을 통해 신앙을 가졌던 (조)부모 세대의 눈으로 보면 모태신앙으로 시작한 (손)자녀의 신앙과 교회 생활은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기 마련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에 31%가 동의했고, 자녀의 신앙이 부모보다 못할 것 같다는 우려는 27%였다. 대략 신앙 가정의 1/3 가까이가 자녀 신앙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서당에서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이 교육 기능도 담당했다. 글자 교육 뿐 아니라 도덕과 인성 교육도 각 가정의 몫이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 기능은 점차 위축되고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냄으로써 최소한의 교육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신앙 교육도 학교 교육을 닮아가면서 각 가정은 자녀를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는 부모들이 59% 밖에 안된다고 한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도 ‘교회 잘 다녀왔니?’, ‘수련회 가야지?’ 등 교회 집회에 참석을 권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주일에 기껏 2시간 내외 진행되는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것도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이전에 주일학교 출석 학생들의 절반 정도만 현장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조사결과(예장 합동, 목회자 600명, 2020.11)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절반 정도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와 연결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결국 코로나19 시대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한국 교회에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회 교육 강화이다. 이번 조사 결과, 아버지가 교회 출석하는 가정이 어머니가 교회 출석하는 가정보다 전가족 출석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아버지의 가정 내 신앙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를 묻는 질문에 부모 모두 본인을 가장 높게 지적했는데, 아버지의 본인 지적률이 어머니의 본인 지적률보다 높았다. 이는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신앙적 영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살펴보면, 교회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내 아버지 역할과 신앙적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남자 소그룹을 구성하여 아버지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신앙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번 조사에서 의미있는 발견 중 하나가 크리스천 부모의 절반이나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실이다. 부모들 중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실제 이를 실천

1) 기독교신문 인터넷판(<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60>). ‘[특별기고] 한국 교회 성장과 부흥-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2012. 2. 6)



## 시사점

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부모 중 5%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학생 대상 현장 교육에 집중했다면, 코로나 시대에 부모 대상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이렇듯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들이기에 무려 82%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우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법, 부모 역할, 자녀와 함께 하는 신앙 프로그램 등을 원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부모 대상으로 한 자녀 신앙 교육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관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교육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건강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 변수 중 하나가 소그룹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분석했지만, 부모가 정기적으로 신앙적 소그룹 활동을 하는 가정일수록 모든 신앙적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신앙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 CEO인 탐 레이너 박사는 교회의 건강은 소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확실히 소그룹 활동이 강한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고 더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는 모든 부모를 소그룹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다음세대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 결과 본인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부모가 31%나 되었다. 한국 교회 가정 신앙 건강도 지표이다. 목회자들은 다음세대 자녀를 둔 교회 성도 10가구 중 3가구가 현재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비율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가정 목회 사역을 전개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국내 입양 실태>  
2007년부터 국내 입양아, 국외 입양보다 많아져!
2.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姓) 선택 '찬성한다' 62%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국내 입양 실태

지난 화요일(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었다. 올해 초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다루면서 입양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입양의 날을 며칠 앞둔 5월 8일에는 2살된 입양아가 칭얼거린다고 양아버지가 손과 나무주걱으로 머리를 마구 때려 아이를 의식 불명상태로 만들어 그가 긴급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입양의 날을 맞아 국내 입양 실태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1



## 2007년부터 국내 입양아, 국외 입양아보다 많아져!

- 우리나라의 입양아는 그동안 해외로 보내는 국외 입양아가 국내 입양아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 격차가 점점 줄어 지난 2007년부터 역전, 국내 입양아가 더 많아져 현재는 국내와 국외 비율이 55 대 45 정도가 되고 있다.
- 총 입양아 수는 2001년 4,206명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2019년에는 704명으로 지난 20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

[그림] 총 입양아 수 추이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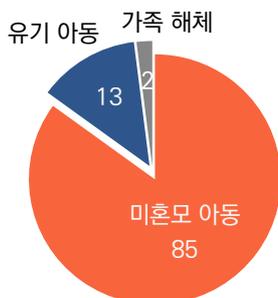
[그림] 2019년 입양아 비중 (국내 vs 국외) (%)



### ● 국내 입양아 유형, 85%가 미혼모의 아동!

- 입양아의 유형을 보면 국외 입양아는 100% 미혼모 아동이며, 국내 입양아는 85%가 미혼모 아동이고, 다음으로 유기 아동이 13%이다(2019년 기준).

[그림] 국내 입양아 유형 (%)



[그림] 국외 입양아 유형 (%)



\*자료 출처 : 베이비뉴스, "작년 국외입양 100% 미혼모 아동... 국가는 어디 있나", 2020.09.11. (보건복지부, 2019년 입양통계)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92>

2.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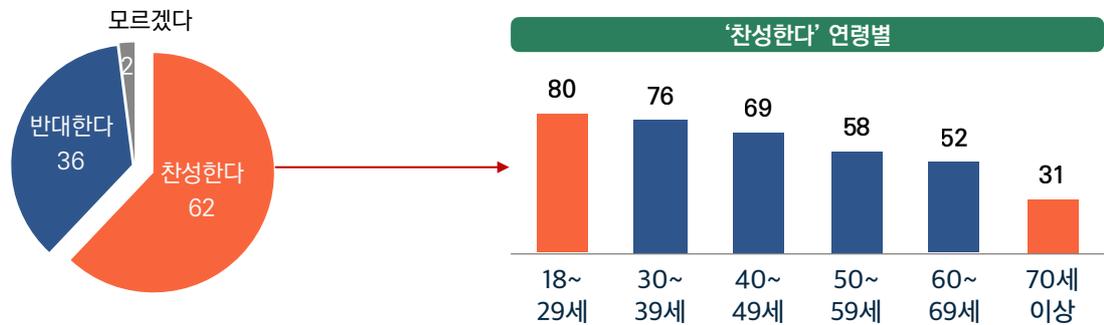
1



##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姓) 선택 ‘찬성한다’ 62%

- NBS(전국지표조사, 국내 4개 여론조사기관 연합 정기 조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두 명 중 한 명의 성(姓)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62%, ‘반대한다’ 36%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찬성률은 20대 80%, 70세 이상 31%로 세대 간 큰 격차를 보이는데, 자녀의 성(姓) 선택에 있어서 고령층일수록 아버지 성(姓)을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姓)으로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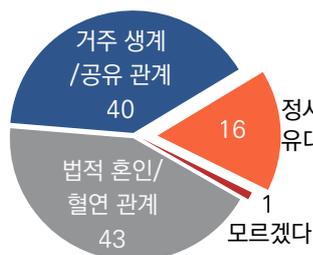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NBS(전국지표조사), '제 27호 2020년 5월 1주',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2021.05.03.-05.05)

## ● 우리 국민의 40%,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다!’

- 우리 국민의 5명 중 2명(40%)은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법적인 결혼 또는 혈연으로 맺은 관계가 가족이다’라는 전통적 가족관 4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전통적 가족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1인 가구 층의 응답이 21%로 모든 가구 유형 중 가장 높는데, 이는 사별 또는 자녀 분가 등의 이유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층에서 가족 관계에 있어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가족에 대한 인식



[그림] '정서적 유대 관계로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 응답률 (가구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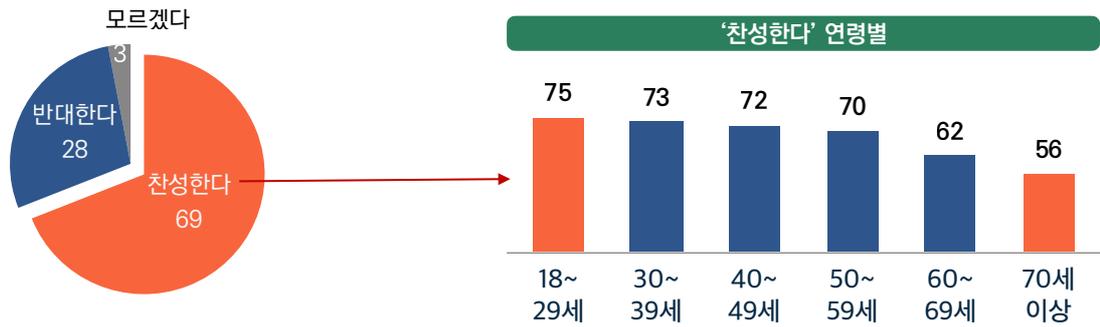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NBS(전국지표조사), '제 27호 2020년 5월 1주',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2021.05.03.-05.05)

## ● 우리 국민 69%, 동거/사실혼/위탁 가정 ‘가족으로 인정한다!’

- 전통적 혈연관계의 가족 형태가 아닌 확장된 가족 형태인 동거, 사실혼, 위탁 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69%)이 ‘찬성한다’고 응답해, 역시 가족 관계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 확장된 가족 형태에 대한 찬성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한데, 세대별 가족 형태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눈에 띈다.

[그림] 동거, 사실혼, 위탁 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찬반 (%)



\*자료 출처 : NBS(전국지표조사), '제 27호 20201년 5월 1주',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2021.05.03.-05.05)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  
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47호\(2021년 5월 2주\)](#)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27호 \(2021년 5월 2주\)](#)

일  
반

[가상화폐 4050세대가 값 올린 후 2030세대가 뛰어 들었다](#)

한국일보\_2021.05.12.

[국가시설 무색한 '항만 참극'...노동자 사망, 전 산업평균의 1.5배](#)

한겨레\_2021.05.11.

사  
회

[국민 갑질 인식조사, 사람 목숨까지 뺏는 갑질](#)

한국일보\_2021.05.10.

[국민의힘과 언론이 때려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3회 연속 청취율 1위](#)

뉴스프리존\_2021.05.14.

경  
제

[4월 취업자 65만명 ↑ 6년 8개월만에 최대... "고용회복 뚜렷"](#)

연합뉴스\_2021.05.12.

[끝나지 않은 '빚투' 지붕 뚫은 가계대출](#)

연합뉴스\_2021.05.12.

환  
경  
/  
국  
제

[이대로 가다간...2030년 한국 '1인당 CO2 배출량' 주요국중 1위 될지도](#)

한겨레\_2021.05.09.

[먹는 빨대, 페트병 옷... MZ세대는 친환경에 지갑을 연다](#)

조선일보\_2021.05.10.

[못쓴돈 2200조원 폭발...수퍼카·집 다 사들인다, 美 소비 빅뱅](#)

조선일보\_2021.05.08.

칼  
럼

[청년들 힘든 삶에 책임지지 않는 586세대의 위선](#)

중앙일보\_2021.05.10.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한겨레\_2021.05.1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기획 특집1 - 그늘진 가정의 달 (매일경제)**

[\[그늘진 가정의 달 1\] 다문화 가정, 비주류 취업 말고...사회에 잘 스며들게 도움을](#)  
2021.05.04.

[\[그늘진 가정의 달 2\] 학대아동 10명중 1명, 5년 내에 또 당해](#)  
2021.05.06.

[\[그늘진 가정의 달 3\] "그래도 내 새끼인데..." 때리는 자식, 감싸는 부모](#)  
2021.05.07.

**\*기획 특집2 - 1인세대 (중앙일보)**

[\[1인세대 특집1\] "반려묘 양육 방식 달라 독립"...'나혼자 산다' 벌써 900만명](#)  
2021.05.10.

[\[1인세대 특집2\] 세대분리 1년만에 청약 당첨...미친 집값이 만든 230만 K싱글](#)  
2021.05.10.

[\[1인세대 특집3\] "234만명의 격차"...'1인세대'와 '1인가구' 차이점을 아시나요](#)  
2021.05.10.

[\[1인세대 특집4\] "창원 집값 미쳤다"...자녀 떠나고 남은 '60대 싱글' 도시](#)  
2021.05.10.

[\[1인세대 특집5\] 기숙사 박차고 나온 여고생, 두번째 식구로 '논숙자' 택했다](#)  
2021.05.11.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아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호,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김성식(증액, <주>벽산 대표이사), 기쁨의 교회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빛회

## 세미나 안내

이번 넘버즈 보고서에 실은 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주체인 한국IFCJ 가정의힘에서 '한국 크리스천 가정의 신앙전승 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5월 25일(월, 오후 2~4시)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미나 관련 안내입니다

세미나 안내 : [세미나 안내 페이지](#)

세미나 신청 : [여기를 눌러주세요.](#)